



국내 해운 · 조선업계간 협력관계 크게 진전

해운 및 조선동향 및 전망에 대해 정보공유 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위해 적극 협력

해운 및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양 업계간 협력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양 업계는 그동안 실무협의회와 임원회의 등을 정례화하면서 해운과 조선시황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정보공유는 물론, 양 산업의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이슈에 대해서도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는 등 협력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양 업계는 5월31일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제8회 해운 · 조선산업 발전 실무협의회를 갖고, 해운 및 조선시황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OECD 신조선 협상과 LNG선 발주문제 등 주요의제를 논의했다.

양 업계 실무부서장들로 구성된 해운 · 조선산업 발전실무협의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선업계에서 해운업계의 선박건조 공정에 대한 이해 증진 차원에서 실무협의회를 지방조선소 등에서 순

환하여 개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운 · 조선시황 동향과 관련하여 해운업계측에서는 최근 해운시황이 급격히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지표들이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에서는 조선시황은 아직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다가 올 해운경기 하강에 따른 조선시황의 동반하강에 대비하여 양 업계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OECD 신조선협상에 대해 조선업계측에서는 현재 OECD에서 신조선 협상이 진행중이며 조선보조금 금지문제와 선박건조가격 최저가 담합제도 도입문제 등이 주요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 · 유럽 등이 조선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이의 금지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조선소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최저가격기준을 협정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한국은 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현행 자유경쟁체제를 선호, 최저가격기준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은 한국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어 최저가격기준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며,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최저가격기준제도에 의한 경쟁제한은 선박건조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해운업계에 피해를 줄 것이므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국



내 조선업계가 최저가격 기준제 도입을 저지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더구나 해운업계에서는 필요 시 OECD 조선협상에 참여하여 국내조선업계와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LNG선 건조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 건조 도크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조선업계에서도 실무차원에서 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업계는 6월24일 한국조선공업협회에서 업계 임원들이 참여하는 제2회 해운·조선산업 발전협의회를 갖고,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협의하고, 특히 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과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두찬 회장 IMO 사무총장과 오찬간담회

코트디브와르 총리실장 등 정부관계자에도 오찬

한국선주협회 장두찬 회장은 6월1일 방한중인 국제해사기구(IMO) Efthimios E. Mitropoulos 사무총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해상안전 등 국제해운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장 회장과 Mitropoulos 사무총장은 해상안전을 비롯하여 해상보안, 한국해운산업의 현황과 IMO의 역할 등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장두찬 협회장과 이진방 부회장(대한해운 사장), 박찬재 전무, 채이식 고려대학교수(IMO 법률위원회 차기위원장), 정일영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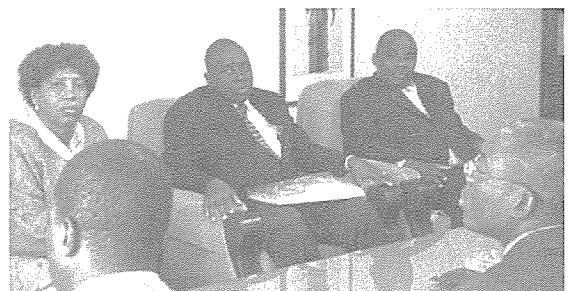
Mitropoulos 사무총장이 지난 5월30일 입국하여 다음 날(31) 울산에서 개최된 제10회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국제해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펼치는 적극적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바다의 날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오후에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

6월1일 오전에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국제경제에 있어 해운산업이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특강을 했으며, 한국선주협회장과의 오찬간담회

뒤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우리나라와 IMO 간의 상호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Mitropoulos 사무총장은 6월2일에 그간 반세기 가까이 해사분야에 투신해 해상안전·보안 및 해양환경보호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중앙대학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3일 오전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한편, 장두찬 회장은 6월9일 방한중인 코트디브와르 TAGLIANTE SARACINO J. 총리실장을 비롯하여 DIARRA Amidou 주한 코트디브와르 대사, TEYA DEWE Pascal 교통부 장관실 해상교통고문, ABE AKE Lazare 교통부 해양항만국 해상협력관, Gondo SIABA 주한 코트디브와르대사관 영사를 접견하고 양국간 해운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세광ship 등 3개선사 선주협회 회원가입

선주협회 회원사 모두 58개사로 늘어

세광ship, 대림H&L, 케이에스마린 등 외항해운 3사가 6월1일부로 한국선주협회 회원으로 가입, 회원자격을 취득했다. 이로써 한국선주협회 회원사는 모두 58개사로 늘었다.

이번에 한국선주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세광ship(대표 박세룡)은 지난 1996년 5월 설립됐으며, 2002년 10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취득하여 본격적으로 외항해운에 진출했다.

특히 이 회사는 현재 3,400~5,000DWT급 Oil/Chemical Tanker 1척과 Oil Tanker 2척 등 모두 3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이사인 박세룡 사장은 지난 1981년 한국해양대학교(항해학과)를 졸업하여 고려해운과 한진해운, 미국선사인 Sea-Land, 중앙상선, 협성선박 등에 근무하다 1996년 6월 세광ship을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통해운인이다.

대림 H&L(대표 박준형)은 지난 2001년 3월 설립되었으며, 2004년 4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취득하여 외항해운업에 진출했다.

이 회사는 현재 3,000DWT~3,800DWT급 LPG선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케미칼 운반선 4척을 보유하여 운항하고 있으며, 다수의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고 있다.

이 회사 박준형 사장은 지난 1974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화학공학과)을 나온 뒤 1976년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에 입사하

여 2000년 3월 대표이사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 10월 대림 H&L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지난 2003년 3월에 설립된 케이에스마린(대표 김문환)은 8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받고 외항해운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현재 6,000DWT급과 6,500DWT급 일반화물선 2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이사인 김문환 사장은 지난 1992년 성균관대학을 졸업, 5년간 한신증권에서 영업 및 지점을 관리했으며, 2000년에는 대한해운에서 영업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2001년에는 씨에스마린 설립에 공동투자하여 영업 및 관리부문을 총괄하다 2003년 분사하여 케이에스마린을 설립했다.



사진은 대림 H&L소속 탱커 'DL BELLFLOWER' 호

해운·항만 물류정보화 발전 위원회 개최

위원회 운영규정, 향후 운영방안 등 논의

한국선주협회는 6월2일 해운·항만 물류정보화 발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 운영규정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회는 이에 앞서 국가 및 해운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물류정보화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적외항선사 실무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해운·항만 물류정보화 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고려해운 김석기 차장 등 해운항만 물류정보화 발전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안과 정관내용을 협의했는데, 위원회 개최는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무역촉진법과 관련하여 동법의 내용 중 벌금부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같은 조항의 개정을 규제개혁위 등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해운·항만 물류정보화 발전 위원회 운영규정을 확정지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운대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국가 및 해운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물류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해운·항만 물류정보화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수출신고 미필화물 무단반출 문제점 해소 관세청, 선협건의 수용 벌금부과방침 철회

관세청은 최근 한국선주협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수출신고 미필화물 무단반출과 관련된 선사에 대한 벌금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관세청은 화주의 요청으로 선적하고 출항한 화물을 화주가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여 해당선사에 벌금을 부과기로 하고, 이를 해당선사에 통보했다. 해당선사들은 수출신고를 필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 화주측의 수출신고 이행약속을 받고 선적하여 출항했다.

하지만, 화주가 적하목록 제출 마감시한(출항 익일 24시까지)까지 수출신고 필증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상의 벌과금 규정에 따라 1건당 1,320만원의 벌금을 부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세청에 구조적인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선사도 선의의 피해자임을 역설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협회는 선사와 화주간의 관계상 현실적으로 화주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선사도 책임이 있으나, 수출신고수리 필증을 제출하지 못한 화주가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또한 미필증 물품의 선적이 가능하도록 터미널로 진입시키는 현재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선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벌금부과 방침 철회와 제도상 문제점의 개선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협회의 건의를 검토한 끝에, 검찰고발 및 벌금부과 방침을 철회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기로 했다.



한국선주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시상식

레이디얼급 부안군청 김상규 선수 1위

한국선주협회 장두찬 회장은 5월 25일 요트경기장에서 제1회 한국선주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상장과 우승컵, 메달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5월20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펼쳐진 제1회 한국선주협회장배 전국요트경기대회에서 옵티미스트급 남자 초등부에서는 청파초등학교 6학년 양준군이 1위를 차지했으며, 남자 중등부에서는 대천서중 1학년 박민혁 군이, 여자 초등부와 중등부에서는 청파초등학교 6학년 이경진 양과 동백중 1학년 양다운 양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레이저 레이디얼급에서는 남자 고등부에서 해운



대고 2학년 김리겸 군이, 남자 대학일반부에서는 부안군청 김상규 선수가, 여자오픈부에서는 해운대 여고 2학년 학해든 양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입상자명단은 다음(7p)과 같다.

한국선주협회 2005년도 사장단 연찬회 개최 정기, 대형·소형부정기, 정책분야 분임토의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는 7월1일, 2일 양일간 천안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2005년도 사장단 연찬회를 갖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한국선주협회는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의 장·단기 업무추진계획을 재점검하여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해운업계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정부 관계부처와의 정책 조율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정례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서 사장단은 정기선분야를 비롯하여 대형 및 소형부정기선분야, 정책분야 등 3개 분임조로 나누어 시황동향과 전망,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번 연찬회에서 제기된 각종 현안사항이나 의견을 취합하여 대정부 건의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정책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1회 한국선주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입상자 명단]

			1위		2위		3위	
	종목	부별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	오피미스트	남자 초등부	청파초 6	양 준	청파초 6	강하아민	청파초 5	김창윤
2		남자 중등부	대천서중 1	박민혁	동백중 2	이상민	금정중 3	남용진
3		여자 초등부	청파초 6	이경진	청파초 6	최성은	해강초 3	최서은
4		여자 중등부	동백중 1	양다은	금양중 1	김도연		
5	레이저4.7	중등부	동백중 3	정 보				
6	레이저	남자 고등부	해운대고 2	김리겸	해운대고 3	최성환	강릉명륜고 3	김동호
7	레이디얼	남자 대학일반부	부안군청	김상규	여수시청	이영민	우석대 2	신상민
8		여자 오픈부	해운대여고 2	박해든				
9	레이저	고등부	해운대고 3	박성진	양운고 1	하지민	대전북고 3	전탁구
10		대학부	한국해양대 3	김인섭	순천대 1	문용범	한국해양대 1	박하정
11		일반부	대구도시개발공사	황대원	거제시청	김호곤	해운대구청	진홍철
12	윈드서핑	중등부	대천서중 3	윤선평				
13	프로디지	고등부	강릉명륜고 3	권기범	광양고 3	조일곤	연남고 3	장 윤
14	미스트랄	남자 고등부(L)	해성고 2	하종민	양운고 2	김지원	해성고 1	강현준
15		남자 고등부(H)	후포고 2	이경환	해운대고 3	강태관	해성고 2	신동일
16		남자 대학부	순천대 2	김준식	한국해대 3	김경용	경원대 3	김창우
17		남자 일반부	해운대구청	옥덕필	강릉시청	문창성	전북일반	송명근
18		여자 고등부	연남고 2	강민정	거제여상 3	강아영	해성고 2	강보혜
19	여자 대학일반부	거제시청	신지현	부경대 3	지정화			
20	420	남자 고등부	양운고 1	신승모 이재민	진천농공고2	오용태 전충금		
21		남자 오픈부	한국해양대 1	서수형 조성민	위덕대 1	박인호 조정식	여수고 3 순천대 1	고현암 윤세인
22		여자 오픈부	부안농공고 2	임화은 김영미	용호고 1 용호고 2	박희운 김민정		
23	470	남자 대학부	한국해양대 3	임유신 김찬우	한국해대 4 한국해대 2	김의도 정상진		
24		남자 일반부	평택시청	김대영 정상안	울산체육회	윤 철 김형태	해운대구청 부산시체육회	박규태 성창일
25	엔터프라이즈	일반부	영등포구청	김순호 이태주	평택시청	김태정 심재정	거제시청	박병기 윤해광
26	스나이프	대학 일반부	한양대 3 여수시청	이주완 방득수	해군사관학교	이종호 최동환		
27	J/24		무리애호		자이언트 알파호		자이언트 감마호	
28	크루저		기지호		크라리사호		드레이크호	
29	독도레이스		바람바다호(주장성, 문덕진, 박정빈, 김성식, 안춘상)					

승선선원에 대한 여권발급 및 갱신 등 건의

승선선원 대리인 통해 여권발급 가능토록 산업기능요원 여권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승선(출국)중인 선원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여권발급이나 갱신, 재교부 등이 가능토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이 지난 3월24일 공포됨에 따라 선원수첩의 여권기능이 배제되고 승선중인 선원들의 모든 출입국업무는 6월1일부터 선원수첩이 아닌 여권으로 변경됨으로써 승선중인 선원들의 경우 국내 입항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협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여권이 없는 선원들은 국내 귀항시 모두 하선해야만 하며, 이에 따라 선박운항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승선(출국) 중인 선원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이나 갱신, 또는 재교부가 가능토록 배려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협회는 또 해운수산분야에서 병역대체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

여 주도록 건의했다.

협회는 승선중인 선원들은 여행목적이 분명하고, 해외공관을 통한 여권발급이 국외항구에서의 선원 하선제약으로 불가능한 만큼,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협약(2003, 제185호)'이 금년 2월9일 발효되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본 협약에 대한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외국항을 출입하는 선원의 출입국 수속은 선원수첩이 아닌 여권으로 변경하였으며, 외국항을 출입하는 선원은 모두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선원신분증명서는 발급시까지 기존 선원수첩을 선원신분증 명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승선중 선원에 대한 여권발급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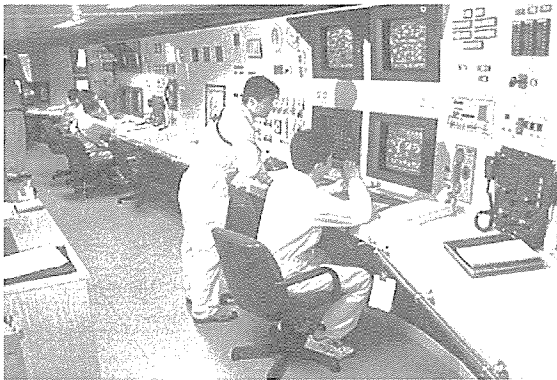
(단위 : 명, 2004년말 승선인원 기준)

구분	승선중인 선원	예상발급비율	예상발급수
외항상선	6,932	40%	2,773
원양어선	2,859	10%	286
내항상선	8,068	20%	1,614
합 계	17,859	-	4,673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 여권발급 수

(단위 : 명, 2005년 4월말 현재)

구분	복무중인 선원	예상발급비율	예상발급수
해운분야	2,325	100%	2,325
수산분야	154	100%	154
합 계	2,679	-	2,679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건의

의무종사 만료예정일 기준 6월 이상 기간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병무청에 건의했다.

금년 2월 개정된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591호, 2005. 2. 1)에 따라 선박승무원으로 탑승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은 고용계약기간에서 의무종사기간 만료시까지로 조정되었다.

이에 협회는 건의를 통하여 이같은 규정개정은 선박 하선 후 재승선시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실제로 복무만료직전 여권의 갱신 등 국외여행을 위한 절차상 불가피하게 국외여행허가를 다시 득해야 하



는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충실하고 상기와 같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시 의무종사 만료예정일 기준으로 6월 이상 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하여 주도록 건의했다.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적용유예 건의

국제적인 외국인선원 임금수준 감안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선원임금 수준을 감안하여 적용시기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건의를 통해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 관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업종별로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업체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세계해운시장에서의 외국인선원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2005년 6월1일부터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승

선하는 외국인선원에게 한국선원과 같이 동법 제54조에 의한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한 해양수산부의 방침은 기존에 승선중인 외국선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선원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기존 외국인선원 대한 국제적인 선원임금 실정을 감안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에 관한 조치를 합리적인 시장질서가 마련되는 시점까지 유보하여 주도록 건의했다.



선협, LNG선 확보를 위한 JVC 설립 추진

국적선사/가스공사에 의한 JVC 설립 필요 산업자원부, 6월중 입장확정 및 입찰공고

LNG선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회사(JVC)가 오는 9월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6월13일 산자부 중회의실에서 JVC 설립관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하여 국적외항선사,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에 의한 LNG 수송 및 JVC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에서는 JVC 설립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산자부도 해양부와 해운업계의 의견대로 JVC 설립을 허용토록 하겠다고 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산자부로 공식문서를 통해 JVC에 관한 입장을 제시하여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LNG선 건조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형 화물창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화물창 개발기술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금번 LNG선 건조와 관련시간이 촉박하므로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추후 재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JVC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6월중에 이와 관련된 입장정리와 함께 입찰공고를 내고, 7월에 참여제안서를 접수받아 8월에 사업자를 선정한 뒤 9월에 JVC 설립 건조계약 체결과 한국형 화물창 탑재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같은 계획에 따라 2008년에는 JVC와 선사간 운항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LNG선 4척(사할린 도입물량 수송 1척, 예멘 도입물량 수송 3척)

이 JVC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량화물수송체계 개선 연구용역 착수

POSCO, 한국전력 발전 5개사, 한국가스공사, 해운선사, 조선소 등으로 구성된 대량화물수송협의회는 LNG, 제철원료, 석탄 및 원유 등 국가 주요물자의 수송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대량화물수송협의회는 6월8일 해양수산부에서 '무역·해운·조선 동반 발전을 위한 LNG, 제철원료, 석탄 및 원유 등 국가 주요물자의 수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이번 용역은 △대량화물물의 화종별 수송 포트폴리오 분석 △화주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해운기업의 수송체계 변화 필요성 △선진 해운국 중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일본과 대만 등의 수송관행 변화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대량화물 수송모형을 제시하게 된다.

용역 목적에 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화주-해운선사-조선소-철강산업간 상생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량화물 수송체계 전반을 조망하고, 개별기업의 비용최적화 행위가 산업간 협력관계 구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8년부터 이뤄진 가스공사와 한전 자회사 및 POSCO 등 공사의 민영화와 함께 96년 OECD 가입으로 인한 해운자유 원칙의 국내법 수용 등 환경변화 등으로 국가 전략 화물 수송이 외국선사에 개방된 상황이다.